

피아니스트 탁영아 빛나는 슈베르트의 예술성을 음반에 담다



최고의 피아노 제조사로 자리매김한 스타인웨이의 브랜드가 부지런히 확장 중이다. 전 세계 어디든 스타인웨이의 피아노가 있다는 것, 이를 매개로 한 피아니스트와의 소통이 용이하다는 점이 브랜드의 떠오르는 가치다. 이에 스타인웨이 앤 선즈(Steinway & Sons) 레이블로도 다수의 음반이 발매되고 있다. 올해 그라모폰상 피아노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임윤찬의 또 다른 음반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도 이 레이블의 음반이었다.

11월 1일, 탁영아의 스타인웨이사 두 번째 음반이 발매된다. 2019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담은 음반에 이어,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두 피아노 소나타(D784-D894)가 담겼다. 스타인웨이는 이번 음반을 '탁영아의 예술성이 빛나는 음반'으로 주목했다. 11월 7일(미국 동부 기준)에는 스타인웨이의 초청으로 탁영아의 '스피리오캐스트 리사이틀'도 진행된다. '스피리오'는 저장된 음악이 실시간 피아노 연주로 자동 재생되는 스타인웨이만의 기술이다. 스피리오캐스트 리사이틀은 이를 활용, 미국에서의 연주를 스피리오 피아노가 있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한 송출 방식 중 하나다.

스타인웨이사와의 첫 음반은 뮤직 앤 미디어 총괄 디렉터 존 파이너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번 음반의 제작 과정은 어땠나?

지난 음반의 성공적 발매 이후, 다음 음반 얘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슈베르트의 소나타를 제안했더니 흔쾌히 수락했고,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음반 제작의 모든 과정은 스타인웨이의 전적인 지원으로 진행되었고 그래서 음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피아니스트는 슈베르트의 음악을 어릴 때부터 접한다. 작곡가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 했으며, 이 기억은 어떻게 변해왔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나간 국내 콩쿠르 우승으로 빈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즉흥곡 Op.142를 연주했다. 어린 마음에도 선율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이후 예원학교에 입학해 소나타 D664를 배우며 더 진지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성장하면서 슈베르트의 음악은 늘 가깝게 느껴졌고, 피아노와 현악 작품부터 실내악과 교향곡, 그리고 옐리 아델링이나 피셔 디스카우 등 그의 가곡을 부르는 성악가들의 연주까지도 즐겨 들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탁영아'가 조명하고 싶은 슈베르트 음악은 무엇인가?

그의 피아노 소나타는 많은 연구와 깊은 예술적 이해가 필요하다. 가곡 작곡가로도 유명한 슈베르트의 음악에서는 시나 가사를 통한 감정의 전달이 중요한데, 피아노를 통해 이를 표현할 수 있

게 하는 능력도 뛰어난 작곡가다. 그의 음악에 반영된 가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작품 중 D784, D894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소나타 D784의 1악장은 어둡고 비장하게 시작하지만 2주제의 위로가 무척 따뜻하다. 연습하면서도 몇 번이나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이는 두 악장도 매력적이다. 어둡고 비극적 성격이 짙게 나타나는 곡이다. 소나타 D894는 그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출판된 소나타다. 슈만이 "형식과 구상 모두가 완벽한 소나타"라고도 평가했다. 이 작품의 1악장을 들었을 때, 마치 천상에서 들리는 듯한 아름다운 선율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 언젠간 연주해보겠다는 오랜 마음이 이번 음반에서 실현됐다.

음반을 청취하게 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 곡들을 연습하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이 피아노 앞에서 행복했다. 형식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 나오는 아름다운 선율과 화성에 감동하고, 또 위로받았다. 내 손끝으로 직접 그런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내가 느낀 행복과 감동을 함께 느끼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글 허서현 기자 사진 스타인웨이 앤 선즈

SCHUBERT PIANO SONATAS

스타인웨이 레이블에서 발매된 피아니스트 탁영아의 슈베르트 앨범!
완숙하고 아름다운 연주로 완성된 가단조와 사장조 소나타들의 매력적인 조화

"격정과 우아함의 감동적인 조화"라는 찬사를 들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탁영아의 예술성이 빛나는 스타인웨이 레이블에서의 두번째 앨범
11월 1일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으로 전세계 동시 발매.



스타인웨이



음반 스트리밍



탁영아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는 줄리아드 심포니와 링컨 센터에서의 협연으로 뉴욕에 데뷔하였으며 뉴욕 WQXR, 시카고 WFMT, 필라델피아 WRTI 등의 라디오에서 연주가 중계되었다. 9세 때 부산시향과의 협연을 시작으로 국립심포니, 성남시향, 울산시향, KNN 방송교향악단, Roanoke Symphony, Venice

Symphony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활발한 협연을 가진 탁영아는 뉴욕 카네기홀 웨일홀, 링컨센터, 워싱턴 케네디 센터, 필라델피아 키엘 센터 등 해외 주요 공연장에서의 연주를 하였다. 또한, 부산국제음악제와 평양국제음악제에서의 독주회로 주목받은 탁영아는 LG아트센터, 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기념 페스티벌, 음연초청 피아니스트 문예회의와의 연주 등의 폭넓은 연주로도 호평받은 바 있다. 미국 산안토니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 입상과 함께 특별상 수상, 이탈리아 발세시아-무지카 국제콩쿠르, 독일 예들링겐 국제 피아노콩쿠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미국 힐튼헤드 국제 피아노콩쿠르 등 해외무대에서도 상위 입상하며 눈부신 음악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아드 음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총장 장학금 수혜자로 석사학위와 연주자과정 디플로마를 취득하였다. (김영호, 문용호, 마틴 케인, 변화경, 라셀 서먼 교수 사사) 이후 피터비디 음대에서 가장 레온 플라이스 교수 지도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한 탁영아는 피터비디 음대 예비학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이후 콜로라도 사우스스틴 대학 음대 교수를 역임하며 후학양성에도 열정을 쏟았다. Albany Record, MSR 등에서 음반이 발매되었고, 2019년 스타인웨이 레이블에서 출시된 베토벤 솔로 앨범은 세계 여러 매체를 통해 찬사를 받았다. 스타인웨이 아티스트인 탁영아는 현재 뉴욕주립대 (SUNY Potsdam) 음대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새롭고도 진지한 피아니스트" — 그라모폰 Gramophone

"열정, 상상성, 진실함이 어우러진 최상의 조화" — New York Concert Review

"서양 음악의 요소를 더 예술적 건틀을 위해 최적화된 상태로 담겨 있는 듯한 연주" — 인터네셔널 피아노 International Piano